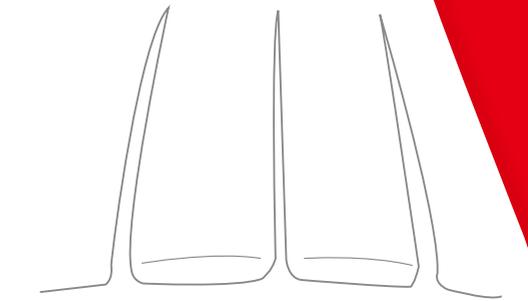


Coca-Co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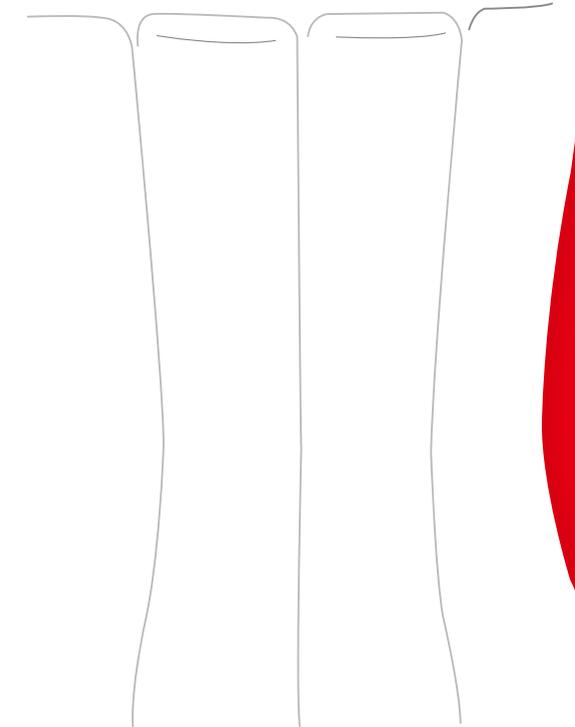


WE LIVE WITH
FRIENDS OF THE EARTH
2013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WE LIVE
WITH FRIENDS
OF THE EARTH

2013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Coca-Cola

코카-콜라 음료(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한국 코카-콜라(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0층

CONTENTS

- 02 목차 /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 04 CEO 메시지
- 06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 History
- 08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목표 /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선언문



- 환경경영** 12 환경안전보건방침 / 녹색경영 목표
- 14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 사고 대응 체계
- 16 환경경영 심사 / 환경성과 평가



- 환경경영 성과** 20 용수 관리 / 수질오염물질 관리
- 22 유해화학물질 관리 & 자원순환포장 인증 / 환경부 특별 기고문
- 24 폐기물 관리 / 한국환경공단 인터뷰



- 탄소경영 성과** 28 온실가스 관리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30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32 탄소성적표지제도 / 녹색구매



- 환경 커뮤니케이션** 36 Earth Hour(지구촌 전등끄기) /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 38 ICC 캠페인 & 농업용수 제공 / 지역환경 개선활동
- 40 여주의제 21 인터뷰 / 용어정의



2013년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2013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코카-콜라 시스템이 추진해 온 환경 관련 정책과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의 정보를 고객과 지역사회, NGO,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코카-콜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카-콜라 시스템의 각 공장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해 온 활동 현황과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데이터는 추이 비교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수록하였습니다.

Contact Us

본 보고서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다음 보고서 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코카-콜라 음료(주), 해태음료(주), (주)한국음료**
HES팀 김종석 파트장
TEL 031-8045-1534 E-mail jongseok.kim@ccbkc.co.kr

» **한국 코카-콜라(유)**
홍보부 구남주 이사
TEL 02-3271-3072 E-mail nkoo@coca-cola.com

※ 본 환경보고서는 FSC인증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인쇄를 사용하였습니다.



1등 음료회사를 향한 새로운 도약, 지속적인 녹색경영으로 앞서가겠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사업부장 배정태

배정태

지난해 우리 회사는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악화와 태풍,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한 마음으로 결속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낸 임직원들의 힘이며 꾸준히 코카-콜라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원을 발판으로 코카-콜라는 '1등 음료회사'라는 비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발생되었던 기업의 환경안전 사건 및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기업, 환경정의를 실천하는 의식 있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환경안전 진단 강화 및 환경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개선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저탄소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는 녹색경영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저탄소제품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코카-콜라 500ml' 제품의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성적표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생수제품 최초로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500ml 및 2000ml 제품도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포장재에 대한 재질개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에서 실시하는 '포장재 재질 구조 사전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코카-콜라 500ml' 및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제품에 대해 국내 업계 최초로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활동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및 환경부와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우수기업 포상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지속적인 환경 커뮤니케이션 및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발간하는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전 세계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Earth Hour' 및 국제연안정화활동(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1사 1하천 그리고 어린이 환경 교육프로그램 등을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코카-콜라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상생을 이뤄나가며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업, 녹색경영을 리딩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7년 상생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Paul C. Y. 한국 코카-콜라(유) 대표이사 이창엽

오늘날의 코카-콜라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설적인 CEO 로버트 우드러프(Robert Woodruff) 회장은 투자자뿐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즉, 파트너사, 고객, 소비자, 직원, 공급업체, 유통업체 및 지역사회의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골고루 이익을 누려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최근 기업에게 요구되는 '상생'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실천해 왔기에 코카-콜라사는 탄생 127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는데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카-콜라사가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인 'Vision 2020'에 환경은 코카-콜라의 사업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코카-콜라사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영역에서 많은 혁신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카-콜라가 집중하고 있는 환경 분야는 '물 보호', '에너지 기후 보호', '친환경용기 개발 및 재활용'이며, 특히 코카-콜라사의 가장 중요한 원료이자 환경자원인 수자원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각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양의 물을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물 중립(water neutral)'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선보인 식물성원료의 플랜트보틀은 이처럼 코카-콜라의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염원을 담아 탄생한 친환경 기술 혁신의 산물입니다. 플랜트보틀은 출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 국에서 100억 병 이상 유통되면서 출시 이후 20만 배럴의 석유를 감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재단과 3년째 진행중인 국내 주요 습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환경 및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의 환경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우리나라 음료 업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환경보고서로 지난 일년간의 환경성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의 환경 관련 활동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코카-콜라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 전략을 펼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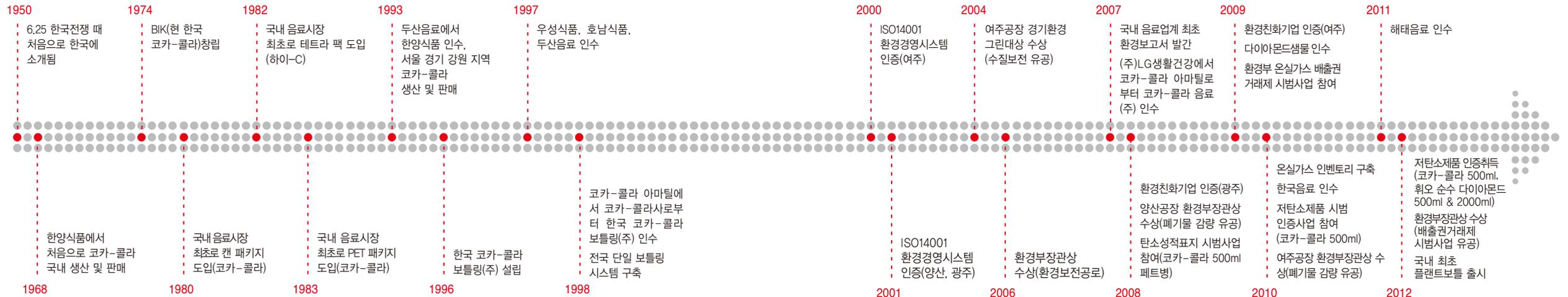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의 시스템은 원액 제공 및 브랜드 관리를 책임지는 코카-콜라사와 완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등 영업을 책임지는 현지의 보틀링 회사로 역할을 분담, 양사의 긴밀한 협조 아래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틀러(Bottle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틀러들은 공장과 운송수단 등 현지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하며,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 믹스와 유통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코카-콜라 조직은 코카-콜라 음료(주)(Coca-Cola Beverage Company)와 한국 코카-콜라(유)(Coca-Cola Korea Company)라는 2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한국 코카-콜라(유)는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관리 및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고, 코카-콜라 음료(주)는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는 1997년 두산음료, 우성식품, 호남식품 등 지역별로 존재했던 보틀러들을 통합하여 설립된 보틀링 파트너(Bottling Partner)로, 2007년 10월 국내 최고의 소비자 마케팅 회사인 LG생활건강의 가족이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대 초 미국에 의해 도입되어 국내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고, 첫 번째 보틀링 파트너였던 한양식품이 1968년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45년간 코카-콜라의 상쾌한 맛은 국내 소비자들의 변치 않는 기호음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코카-콜라 시스템은 코카-콜라 이외에도 '환타', '스프라이트' 등의 탄산음료와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주스',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조지아 커피' 등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음료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한국 음료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음료인 '글라스 비타민워터'를 출시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음료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시스템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상쾌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 해태음료(주) 매출현황 2012년 12월 기준 (단위:백만원)

| | | |
|-------------|-----------------------|---------|
| 코카-콜라 음료(주)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945,070 |
| 해태음료(주)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241,318 |

History



국내공장

코카-콜라는 최고의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여주, 양산, 광주, 남원, 철원, 천안, 평창, 의왕지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전국 단일유통망으로 신속하게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 공장 | 주소 |
|-------------|------------------------------|
| 코카-콜라 음료(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
| 안양 Complex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37 |
| 여주공장 | 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세종로 415 |
| 양산공장 | 경상남도 양산시 총렬로 269 |
| 광주공장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0 |
| 남원공장 |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덕과남길 |
| 해태음료(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
| 천안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
| 평창공장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길 227-35 |
| 철원공장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하문수동길 93 |
| 한국코카-콜라(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0층 |
| 의왕공장 | 경기도 의왕시 고천공업로 5 |

생산제품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로, 코카-콜라 라이트, 환타, 미닛메이드, 파워에이드, 맑은기운차, 조지아 커피, 쿠우, 퓨스티, 스프라이트,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글라스 비타민워터, 태양의 마테차, 번인텐스



코카-콜라 음료(주) & 해태음료(주) 종업원 현황 (2012년 12월 기준)

| | 관리사무직 | 생산/물류직 | 영업판매직 | 총계 |
|-------------|-------|--------|-------|-------|
| 코카-콜라 음료(주) | 602 | 530 | 1,317 | 2,449 |
| 해태음료(주) | 223 | 198 | 375 | 796 |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목표

환경을 위한 코카-콜라의 약속

코카-콜라는 음료의 원액 제조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 : 2004의 요구 조건에 맞춰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과 환경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 그리고 코카-콜라 자체의 환경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 안전에 대한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카-콜라사의 환경 경영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코카-콜라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 관리 (Water Stewardship)

코카-콜라의 물 관리 목표는 제품 제조에서 사용한 물과 같은 양의 물을 지역 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물 사용량 감소(Reduce)
2010년과 비교하여 2020년까지 물 사용 효율을 25% 향상시키겠습니다. 2020년까지 물 사용지수 1.70을 달성하는 것이 코카-콜라의 글로벌 목표입니다.

물 재활용(Recycle)
음료 제조에 사용된 물을 코카-콜라의 엄격한 폐수처리 기준에 부합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깨끗이 처리하여 배출하겠습니다.

물 재충전(Replenish)
최종 제품에 사용된 물과 자연에 되돌려주어야 할 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계보호 및 지역 사회의 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2년 원수보호계획서를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감소(Reduce)
코카-콜라 시스템 내에서 탄소 배출량 증가 없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2015년까지 2004년 기준으로 선진국(Annex 1)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5% 줄이겠습니다.

냉장 판매 장비(Refrigeration)
HFC-Free 단열물질과 냉매의 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집중하여 판매 장비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체 연료(Refuel)
배송차량의 동선을 최적화하여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겠습니다. 동시에 포장재 경량화 작업을 통해 배송 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포장 (Sustainable Packaging)

포장재를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포장재 사용량 감소(Reduce)
포장재 원료의 양과 그 제조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겠습니다.

포장재 회수(Recover)
오늘날 약 85%에 해당하는 양의 제품이 캔, PET와 같은 재활용 용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전 세계적으로 음료 제품의 병과 캔을 100% 재활용 혹은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50% 달성)

포장재 재사용 (Reuse)
회수된 포장재의 재사용 촉진 및 수요 창출을 돕고, 재활용된 포장재나 포장재를 재활용한 제품들을 구매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선언문

전 세계 코카-콜라사(TCCC)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환경성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며, 이러한 정책은 모든 코카-콜라 시스템에 걸쳐 적용됩니다. TCCC와 보틀링 파트너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방식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해당 법규 및 회사의 요구 조건들을 준수할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환경에 대한 노력은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되고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정의됩니다.

물 자원관리 코카-콜라 사업이 수행되는 모든 곳에서 지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할 것입니다.
에너지 기후 보호 코카-콜라 사업은 성장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포장 음료 용기의 재활용과 기술 혁신을 통해 제품 포장재가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는 체계를 구체화할 것입니다.

정책의 세부사항

코카-콜라 시스템 내에서 각 조직 단위 (공장/공장, 보틀러, 현지 법인)는 다음의 목표를 준수하고 TCCC에서 승인된 개별 공장의 상황과 위험성에 일관성 있게 다음 각 요소의 필요한 적용 범위와 세부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환경 정책과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제공을 통해 환경성고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법규 준수 환경 관리와 관련한 코카-콜라의 요구 조건들(코카-콜라 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내부 요구 조건

혹은 해당 법규의 요구 조건들(모든 해당 법규,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중에 보다 강한 법규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종업원의 참여 및 교육 각 조직 종업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백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 교육훈련, 의사소통 시스템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험성 평가 환경에 대해 부각되는 경향과 환경과 관련된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도출합니다.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 조건과 해당 법적 요구 조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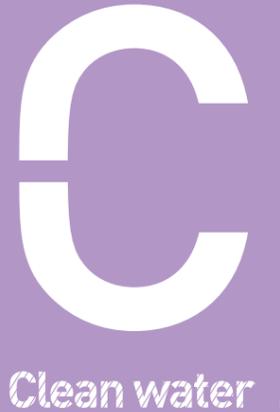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하고 주기적인 목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위기관리 및 해결(IMCR) 해당 법규 및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조건에 일치하면서,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회사 자산, 종업원, 계약자, 고객과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환경 사고를 관리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 환경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의지, 지속 가능한 사업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 NGO, 다른 사업군 및 지역 사회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단체와 협력합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 관리 체계

| 공급업체 | 코카-콜라 시스템 | 제품 판매 | 환경 관리 |
|--------------------------------------------------------------------------------------------------------------------------------------------------------------------|--------------------------------------------------------------------------------------------------------------------------------------------------|---------------------------------------------------------------------------------------------------------------------------------------------------------------------------------------------------------------------------------------------------|------------------------------------------------------------------------------------------------------------------------------------------------------------------------------------------------------|
| <p>음료 원료 설탕, 커피 등 음료의 주요 원료를 전 세계에서 구매합니다.</p> <p>물 연간 약 3천억 리터의 물이 제품생산에 사용됩니다.</p> <p>포장재 병, 캔, 트레이 등 제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포장을 위해 포장재를 구매합니다.</p> | <p>코카-콜라 음료의 원액과 원재료를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하며 마케팅과 광고를 설계합니다.</p> <p>보틀링 파트너 독립 보틀링 혹은 코카-콜라 소유 병입 공장들이 완제품 음료를 친환경적 제조와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합니다.</p> | <p>제품 창고 소매업자를 위해 제품을 저장하고 배송합니다.</p> <p>고객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 식당 등에서 코카-콜라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됩니다.</p> <p>자판기와 쿨러 소비자가 편리하게 음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천만대 이상의 자판기와 쿨러가 설치되었습니다.</p> <p>소비자 코카-콜라의 제품은 하루에 전 세계에서 18억 잔 이상이 판매됩니다.</p> | <p>자원을 보존하고 포장재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포장량 감소, 재회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p> <p>제품제조에 사용한 물의 양과 동등한 양을 지역 사회와 자연에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p> <p>제품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 증가 없이 사업을 성장시킬 것을 약속합니다.</p> |



깨끗한 물

한 방울의 깨끗한 물이 수많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북극곰 가족이 어울려 사는 행복한 보금자리,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코카-콜라의 환경 경영

코카-콜라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예린(대정초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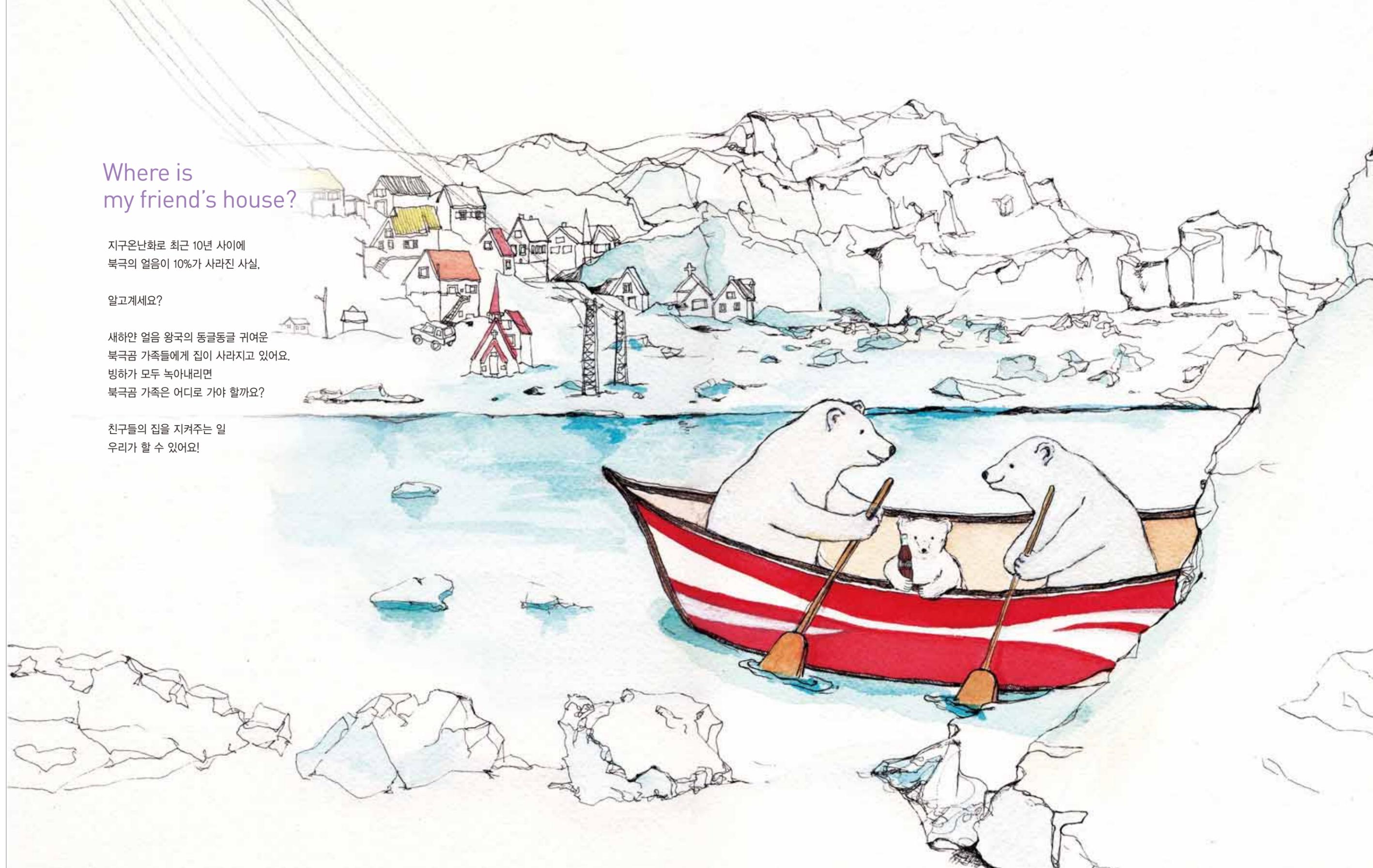
Where is my friend's house?

지구온난화로 최근 10년 사이에
북극의 얼음이 10%가 사라진 사실,

알고계세요?

새하얀 얼음 왕국의 동글동글 귀여운
북극곰 가족들에게 집이 사라지고 있어요.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북극곰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의 집을 지켜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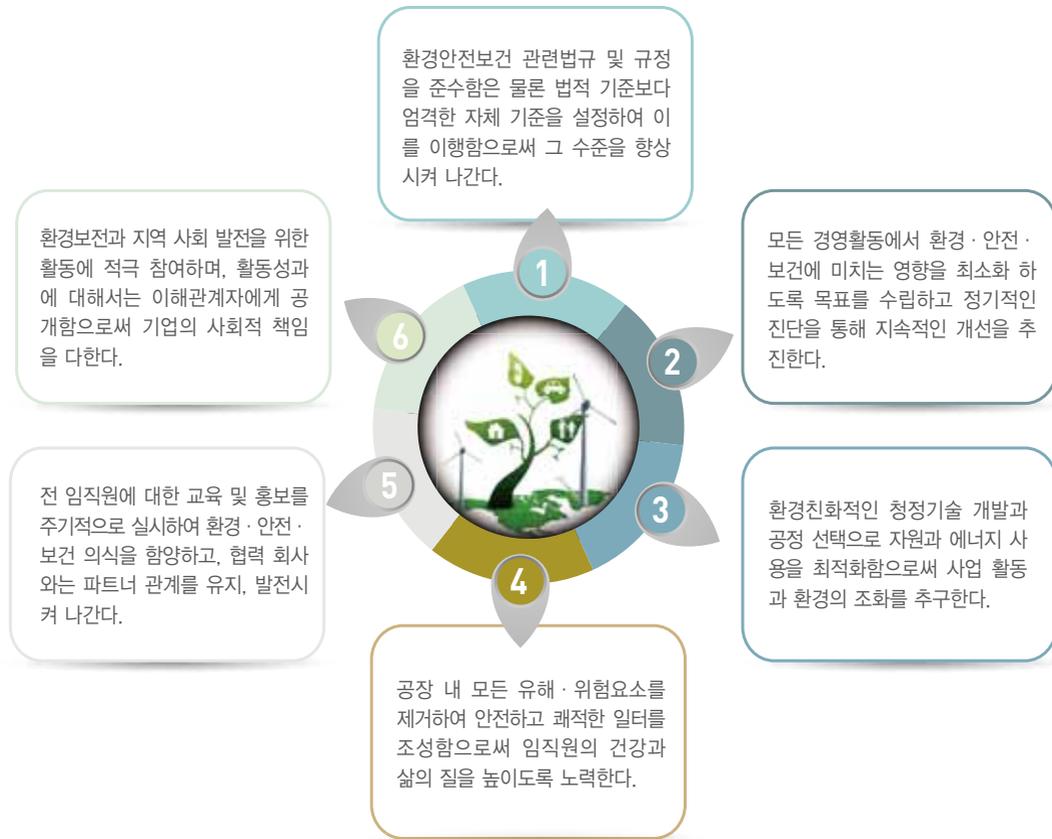


환경안전보건방침

코카-콜라는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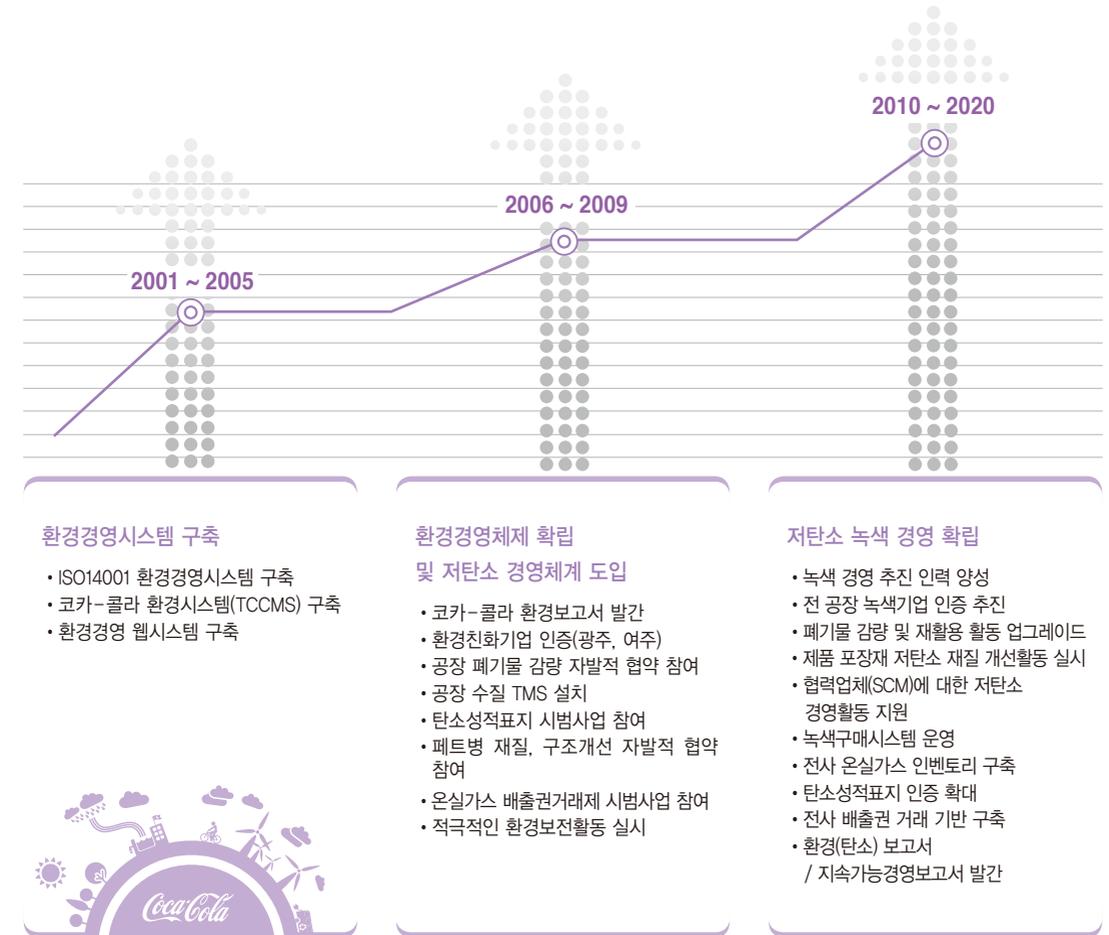
환경안전보건방침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코카-콜라 및 각종 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환경·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녹색경영 목표

코카-콜라는 국내 환경 기준과 더불어 코카-콜라 자체 환경 기준(KORE)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해 녹색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환경 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탄소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의 정부 정책에 참여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코카-콜라는 환경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전 공장에 대해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사의 품질, 환경, 안전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자체 시스템인 KORE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녹색기업을 공장에 도입, 운영하면서 글로벌스탠더드 준수와 더불어 국내 환경 동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에 이어 2009년에 여주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환경경영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도 친환경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자 환경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와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에 이어 2009년에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하여 최근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적 이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사적인 환경안전경영시스템의 참여를 위해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사내 직원들과의 환경 이슈 공유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협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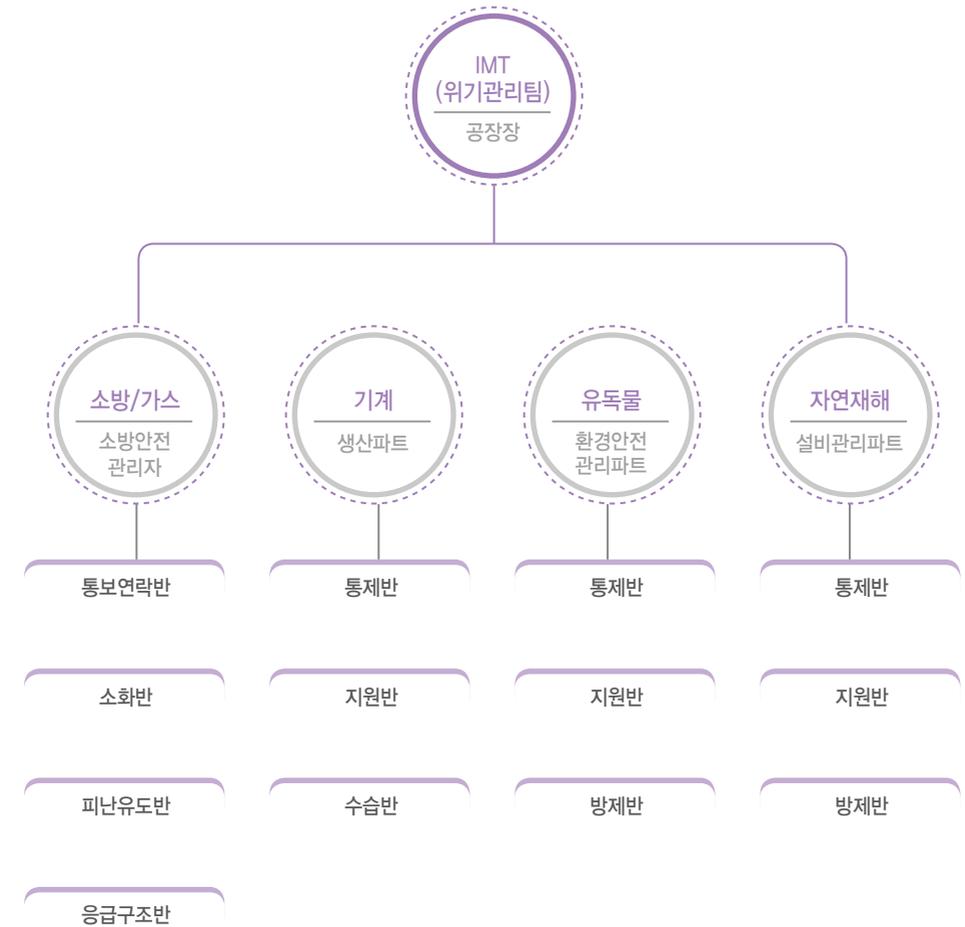
| | ISO14001 | OHSAS 18001 | KORE (코카-콜라 환경 경영인증) | 녹색기업 | 배출권 거래 제 시범사업 |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 온실가스 감축 협약 |
|----|----------|-------------|----------------------|------|---------------|---------------|------------|
| 여주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협약체결 | 협약체결 | - |
| 양산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 | - | 협약체결 | - |
| 광주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협약체결 | - | - |
| 천안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 | - | - | 협약체결 |
| 평창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 | - | - | - |
| 철원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 | - | - | - |
| 남원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 | - | - | - |
| 의왕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인증취득 | - | - | - | - |



환경 사고 대응 체계

코카-콜라는 위기관리시스템(Incid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전사적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팀을 운영하는 목적은 당사의 소중한 자산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손실을 위험 및 사고로부터 예방함은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장 위기관리시스템은 개괄적인 위기관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경미한 수준', '중간 수준', '중대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장 위기관리 시스템



※ 「위기관리팀」은 위기 상황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써 해당 공장의 공장장을 위원장(팀장)으로 하여 운영됨

환경경영 심사

코카-콜라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와 함께 경력과 자격을 갖춘 내부 환경인원을 활용한 자체 ESH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코카-콜라 ESH 시스템 규격과 국내환경법규 준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검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 심사의 구성

| 종류 | 적용대상 | 감사자 | 적용내용 |
|----------------|-----------------------------|-----------------|-------------------|
| ESH 영향 및 측면파악 | ISO14001, OHSAS18001 규정에 의함 | 각 공장 ESH 담당자 | ESH 경영시스템에 반영 |
| 환경영향 평가 | 신규 부동산 및 동산에 적용 | 외부 전문가 내부 환경전문가 | 신규계약서 / 지침서에 반영 |
| 영업 / 물류 ESH 점검 | 개별 공장에 적용(물류센터 / 공장) | 사내 ESH 담당자 | 법규 / 코카-콜라 준수에 반영 |
| 협력업체 ESH 감사 | 원부자재공급 OEM업체 적용 | 사내 ESH 담당자 | 법규 / 코카-콜라 준수에 반영 |

2012년 ISO14001 외부심사 결과

| 법인 | 코카-콜라 음료 | | | 해태 음료 | | | 한국 코카-콜라 |
|----------|--------------------------------------------------------------------------------------|----------------------------------------------------|----------------------------------------------------------------------------------------|----------------------------------------------------------------------|--------------------------------------------------|------------------------------------------------------|------------------------------------------------|
| 공장 | 여주 | 양산 | 광주 | 천안 | 평창 | 철원 | 의왕 |
| 심사기관 | LRQA | LRQA | LRQA | LRQA | LRQA | SGS | LRQA |
| 긍정적 측면 | 용수 사용지수, 폐기물 재활용 지수, 슬러지 발생 지수, 에너지 사용지수 등 주요 환경성과 지표가 2011년 전체의 실적 이전 대비 개선됨 | 2011년도의 주요 성과 지표인 에너지 사용지수는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 | 전반적인 환경경영 및 환경관리 업무가 관련 회사 절차 및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환경지표가 전년대비 목표를 달성함(용수 사용지수/폐수처리 비용지수) | - | 현장 자료를 교안으로 작성하여 교육제공 | - |
| 개선/ 권고사항 | 용수/전기/LNG/유독물 사용지수에 대한 감량화 목표를 전 부서가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구분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 | -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파트 내의 주요 환경측면과 관련한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환경목표 설정시 주요환경측면을 고려하고 목표 성과치 상향의 변동에 따라 현실적으로 결정, 목표 달성의 방법을 명확히 요구됨 |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가 다소 효과적이지 못함 프로세스 단순화 필요 및 재검토 요망 | 환경목표와 관련된 세부 목표가 개선된 성과가 고려되어 측정될 수 있도록 정량화되어 있지 않음. | 실험실폐시약(병) 및 보일러 청관제 등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에 추가 |
| 부적합 사항 | 적용되는 환경법규내용에 변질실변인기 폐절연유 관련 환경법규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대해 법규등록 및 해당법규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 | 본사 주관으로 실시된 환경안전진단에서 제기된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 | 환경사고 및 비상시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수립된 주요 환경사고 대비 및 대응절차 외의 연관성이 없음 | - | - | 일부 환경측면 파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환경 관련법의 내부검토 누락 |

2012년 KORE 환경심사 결과

| | 여주 | 천안 | 평창 | 의왕 |
|-------|-----------------------------------------------------|---------------------------------------------------------------------|------|--------------------------------------------------------------------------------|
| 심사기관 | LRQA | LRQA | LRQA | LRQA |
| 부적합사항 | 지게차 정비고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정비가 필요한 차량이 많음으로 인한 정비 장소 부족 |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 사용 지역 파악 및 석면관리 기준은 비치되었으나 모니터링 및 장기폐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 | 가성소다, 황산의 MSDS에 대해 최대한 5년 이내에 검토되어야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폐수 관망도에 오수라인이 표시되지 않음 |

환경성과 평가

코카-콜라의 환경성과는 EPM(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지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PM은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내 공장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외 공장의 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음료제품의 다양화 및 제품 생산력 강화를 위해 해태음료 등의 음료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공장에도 코카-콜라와 동일한 환경성과지표를 도입하여 환경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등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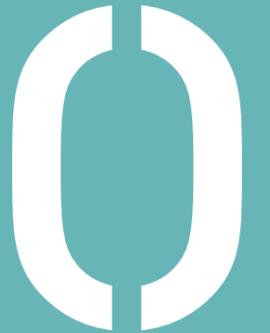
코카-콜라 음료와 해태음료의 공장 환경성과지표는 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음료 남원공장의 용수 사용지수는 5.26으로 다른 공장에 비해 주스류 등의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용수사용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지수는 11.9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지수는 43%로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유독물 사용지수는 2.05로 생산제품종류가 다양하여 다른 공장에 비해 높았습니다. 음료원액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의왕공장은 용수 사용지수가 3.18kg/제품·kg, 폐수 발생지수는 2.77kg/제품·kg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지수는 2.77g/제품·kg이며, 재활용지수는 98.2%로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환경성과지표(2012년)

| 항목 | 단위 | 여주 | 양산 | 광주 | 총계 |
|--------------|-----------------------|-------|-------|-------|-------|
| 용수 사용지수 | 용수·ℓ/제품·ℓ | 2.63 | 3.45 | 2.73 | 2.86 |
| 폐기물 재활용지수 | % | 62.5 | 98.36 | 99.92 | 80.01 |
| 폐기물 발생지수 | g/제품·ℓ | 16.67 | 19.61 | 19.57 | 17.94 |
| 슬러지 발생지수 | g/폐수·ℓ | 5.49 | 4.48 | 4.88 | 5.28 |
|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 g/제품·m ³ | 31 | 29.62 | 44.52 | 33.20 |
| 전력 사용지수 | kWh/제품·ℓ | 0.054 | 0.058 | 0.063 | 0.056 |
| 연료 사용지수(LNG) | Nm ³ /제품·ℓ | 0.011 | 0.009 | 0.007 | 0.010 |

해태음료 환경성과지표(2012년)

| 항목 | 단위 | 천안 | 평창 | 철원 | 총계 |
|--------------|-----------------------|-------|------|-------|-------|
| 용수 사용 지수 | 용수·ℓ/제품·ℓ | 2.93 | 1.12 | 1.18 | 1.84 |
| 폐기물 재활용지수 | % | 90.00 | 0.00 | 85.87 | 88.32 |
| 폐기물 발생지수 | g/제품·ℓ | 12.50 | 0.25 | 0.93 | 5.20 |
| 슬러지 발생지수 | g/폐수·ℓ | 1.62 | 0.00 | 0.00 | 0.25 |
|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 g/제품·m ³ | 16.00 | 0.05 | 2.64 | 18.60 |
| 전력 사용지수 | kWh/제품·ℓ | 0.08 | 0.01 | 0.03 | 0.04 |
| 연료 사용지수(LNG) | Nm ³ /제품·ℓ | 0.016 | 0.00 | 0.00 | 0.01 |



Our dream

우리의 꿈

함께 공존하며 맞이하는 내일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펭귄 친구들이 헤엄쳐 다니는 맑은 바다 놀이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수자원 보호와 재활용

코카-콜라는
인류의 소중한 환경 자원인
수자원 보호를 위해
엄격한 폐수 관리와 함께
용수 절약 및 폐기물 배출량 감축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위례초등학교 1학년)

What is the color of the Antarctic Ocean?

기온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지구 어느 곳 보다 깨끗한 남극의 바다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잠영의 달인 펭귄들이 마음 놓고
헤엄칠 수 있는 맑고 푸른 바다,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용수 관리

코카-콜라는 소중한 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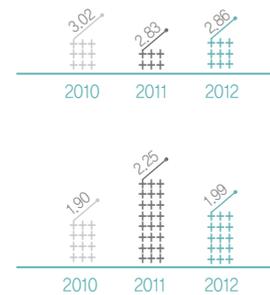
음료제품 제조를 위해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는 제품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생산 공정상 필요한 물은 지하수와 하천수를 사용하며 이는 공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 제조 공장에서는 물 절약 TF 팀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물 절약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 절약 TF 팀의 역할은 먼저 제품 제조과정에서 낭비되는 물 사용처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용된 물이라 하더라도 공정 중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입니다. 생산부문 내의 각 부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SVA보고서(의왕)

대표적인 사례로 여주공장에서는 캔라인 가온기 교체로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양산 및 천안공장에서는 RO 처리 시 발생하는 농축수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절감효과를 보았으며, 광주공장에서는 제품 살균기 탱크 및 급수배관 개조를 통해 물 낭비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왕공장은 제품 원액만을 제조하여 여주 등의 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의왕공장은 원액제조 공정의 특성상 용수사용량이 많으나 CIP 시스템의 도입으로 용수 사용량을 3.18 ℓ /제품 · kg으로 낮추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코카-콜라의 요구조건인 원수 취약성 평가(SVA, Source Vulnerability Assessment) 및 원수보호계획(SWPP, Source Water Protection Plan)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수보호계획(SWPP)은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이슈 대응차원에서 글로벌 코카-콜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승인 프로세스로서, 코카-콜라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물 사용 현황 및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5년 주기로 관리 및 재수립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주, 양산, 광주, 천안, 평창, 남원, 철원, 의왕공장에 대한 SVA 및 SWPP를 수립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용수 사용지수 (단위: ℓ/FBL)

| Year | 여주 | 양산 | 광주 | 총계 |
|------|------|------|------|------|
| 2010 | 2.84 | 3.47 | 2.96 | 3.02 |
| 2011 | 2.57 | 3.58 | 2.59 | 2.83 |
| 2012 | 2.63 | 3.45 | 2.73 | 2.86 |



살균기 물공급 배관 개선(광주)

해태음료 용수 사용지수 (단위: ℓ/FBL)

| Year | 천안 | 평창 | 철원 | 총계 |
|------|------|------|------|------|
| 2010 | 2.5 | 1.12 | 1.22 | 1.90 |
| 2011 | 3.5 | 1.12 | 1.20 | 2.25 |
| 2012 | 2.93 | 1.12 | 1.18 | 1.99 |



SWPP 인증서 수여식

코카-콜라 음료 용수 사용량 (단위: m³)

| Year | 여주 | 양산 | 광주 | 총계 |
|------|-----------|---------|---------|-----------|
| 2010 | 1,007,429 | 551,671 | 320,029 | 1,879,129 |
| 2011 | 979,486 | 589,675 | 300,722 | 1,869,883 |
| 2012 | 1,037,626 | 631,072 | 325,155 | 1,993,853 |

해태음료 용수 사용량 (단위: m³)

| Year | 천안 | 평창 | 철원 | 총계 |
|------|---------|---------|--------|---------|
| 2010 | 352,669 | 117,795 | 33,807 | 504,271 |
| 2011 | 367,498 | 127,794 | 39,763 | 535,055 |
| 2012 | 366,005 | 134,794 | 97,012 | 597,811 |

수질오염물질 관리

코카-콜라는 내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적 요구사항보다 더욱 엄격하게 폐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 및 양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공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인근 점봉천, 양산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은 공장 내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공단지역 법규에 의거하여 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생산계획/준비를 통해 제품 불량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각 공장의 환경안전파트에서 스마트한 폐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폐수처리효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 양산공장은 폐수처리장에 터보블로워를 추가 설치하여 폭기조별 별도 공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폐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예로 미생물의 생육조건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폭기조의 효율 향상 및 폐수 처리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광주공장은 수질 TMS 설치 의무공장이 아니지만 폐수처리장 COD 측정 계측기를 업그레이드하여 폐수관리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천안공장은 폐수처리수에 UV 살균기를 설치하여 폐수처리수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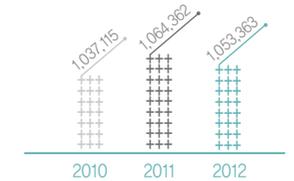
터보블로워(양산)



폐수처리수 UV살균기(천안)

코카-콜라 음료 폐수 발생량 (단위: 톤/년)

| Year | 여주 | 양산 | 광주 | 총계 |
|------|---------|---------|---------|-----------|
| 2010 | 596,433 | 239,369 | 201,313 | 1,037,115 |
| 2011 | 546,373 | 301,850 | 216,139 | 1,064,362 |
| 2012 | 588,988 | 259,016 | 205,359 | 1,053,363 |



해태음료 폐수 발생량 (단위: 톤/년)

| Year | 천안 | 평창 | 철원 | 총계 |
|------|---------|-------|--------|---------|
| 2010 | 206,897 | 838 | 5,992 | 213,727 |
| 2011 | 229,382 | 860 | 6,181 | 236,423 |
| 2012 | 207,909 | 2,150 | 14,717 | 224,776 |



코카-콜라 음료 방류수 평균 수질 (단위: mg/ℓ)

| Item | 여주 | | 양산 | | 광주 | |
|-------------------|------|----------|------|----------|------|----------|
| | 법적기준 | 방류수 평균수질 | 법적기준 | 방류수 평균수질 | 법적기준 | 방류수 평균수질 |
| BOD ₅ | 30 | 6.1 | 40 | 9.93 | 120 | 6.1 |
| COD _{Mn} | 40 | 14.8 | 50 | 10.99 | 130 | 19.8 |
| SS | 30 | 3.7 | 40 | 2.90 | 120 | 11.1 |

해태음료 방류수 평균 수질 (단위: mg/ℓ)

| Item | 천안 | | 평창 | | 철원 | |
|-------------------|------|----------|------|----------|------|----------|
| | 법적기준 | 방류수 평균수질 | 법적기준 | 방류수 평균수질 | 법적기준 | 방류수 평균수질 |
| BOD ₅ | 120 | 3.18 | 40 | 1.24 | 40 | 5.65 |
| COD _{Mn} | 130 | 6.71 | 50 | 1.65 | 50 | 9.1 |
| SS | 120 | 1.35 | 40 | 0.98 | 40 | 4.6 |



유해화학물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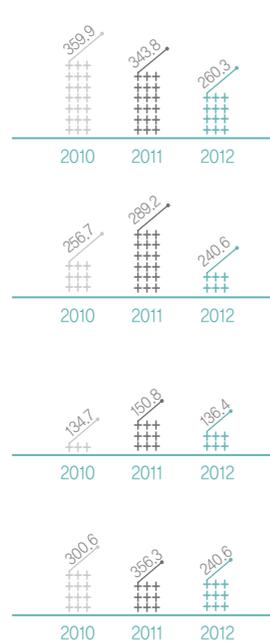
물처리실 위험물 보관장 신설(광주)

코카-콜라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한 위기관리절차 구축 및 비상사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독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장소에는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누출이 될 경우에는 폐수처리장과 연결된 관로에 전량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로에 유독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보관장소가 이격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는 기존 유해화학물질 설비 중에서 노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 및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에서는 유독물 창고 보수공사를 하여 유독물 관리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양산 및 광주공장은 위험물 보관창고를 신규로 증설하였습니다. 천안공장은 폐수처리장 관리효율화를 통해 가성소다 사용량을 절감하였습니다.



| 화학물질명 | 가성소다 | 황산 | 질산 | 염산 | 총계 |
|-------|-------------|--------|-----|-----|-------|
| 2010 | 350.2 | 3.0 | 4.6 | 2.1 | 359.9 |
| 2011 | 329.8 | 8.0 | 4.6 | 1.5 | 343.8 |
| 2012 | 253.5 | 0.0 | 5.2 | 1.6 | 260.3 |
| 용도 | 세척용, 폐수pH조정 | 폐수pH조정 | 세척용 | 세척용 | |

| 화학물질명 | 가성소다 | 황산 | 질산 | 총계 |
|-------|-------------|--------|-----|-------|
| 2010 | 248.1 | 2.4 | 6.2 | 256.7 |
| 2011 | 275.1 | 7.6 | 6.5 | 289.2 |
| 2012 | 234.6 | 0.2 | 5.8 | 240.6 |
| 용도 | 세척용, 폐수pH조정 | 폐수pH조정 | 세척용 | |

| 화학물질명 | 가성소다 | 황산 | 질산 | 총계 |
|-------|-------|--------|-----|-------|
| 2010 | 104.2 | 30.4 | 0.1 | 134.7 |
| 2011 | 118.1 | 32.7 | 0.0 | 150.8 |
| 2012 | 97.6 | 38.4 | 0.2 | 136.4 |
| 용도 | 세척용 | 폐수pH조정 | 세척용 | |

| 화학물질명 | 가성소다 | 황산 | 질산 | 염산 | 과산화수소 | 총계 |
|-------|-------------|--------|-----|------|-------|-------|
| 2010 | 251.3 | 0.2 | 3.2 | 30.6 | 15.3 | 300.6 |
| 2011 | 336.6 | 0.0 | 3.2 | 0.4 | 16.2 | 356.3 |
| 2012 | 221.1 | 1.9 | 3.6 | 0.0 | 14.0 | 240.6 |
| 용도 | 세척용, 폐수pH조정 | 폐수pH조정 | 세척용 | 세척용 | 세척용 | |

※ 평창, 철원공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약품 사용하지 않음

자원순환포장 인증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

당사는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성을 평가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포장재 재질 구조 사전평가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카-콜라 500ml' 및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제품에 대해 국내 업계 최초로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페트병에 라벨 부착 시에 사용하는 접착제를 개선하여 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환경부 박광석 자원순환국장 특별 기고문>

폐자원 회수... 재활용 확대의 디딤돌



박광석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EPR제도,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이하 'EPR제도')는 포장재와 전지 등을 만든 기업이 해당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코카-콜라를 비롯한 EPR제도 대상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02년 93억 8,000톤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을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끌어올리는 등 EPR제도는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에 치우치다 보니,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재활용 기술개발 등 "질적" 목표는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EPR제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 재활용 업체에만 집중되어 온 결과, 회수선별 분야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은 약 42%만 수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자원이 잘 수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폐기물 매립 소각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기증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의 원료부족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실제로 재활용 업체들은 원료인 폐자원이 부족해 투자한 시설용량의 3분의 1 수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은 기업의 폐자원 회수의무를 강화하였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세 수거 선별업체에게도 폐자원 회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수율이 제고되면 현재 재활용 업체들이 겪고 있는 원료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재활용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통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EPR 대상기업들이 폐기물의 회수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는 부담금을 재활용 업체뿐만 아니라 수거 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포장재 생산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EPR 그린마크(가칭)'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포장재별로 6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재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공공의 수거 선별업체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미처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을 현행 42%에서 8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재활용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화되어 연간 5조원 규모의 폐자원 재활용 시장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GE(제네럴 일렉트릭)사 회장 제프리 이멀트는 'GREEN IS GREEN'(환경이 돈이다)이라는 슬로건으로 재활용을 비롯한 환경산업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폐자원을 수거하는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대합니다.

* Green is green
환경산업이 "녹색"으로 대변되고, 달려가 "녹색"인 점에 착안, 환경산업이 곧 수익이 되고 발전성이 크다는 의미로 GE가 사용한 슬로건





폐기물 관리

당사는 폐기물관리 작업표준지침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재활용업체는 당사의 '협력업체관리 작업표준서'에 의거,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공장 내에서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의 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환경시설 도입 및 관리환경의 향상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가급적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기물은 폐수슬러지 및 재사용 유리병 파쇄로 인해 발생하는 폐유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폐수슬러지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따라서 생산공정에서 폐수발생이 원천적으로 줄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폐수슬러지 저감을 위한 1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양산공장은 환입제품 처리장의 캔압착기를 교체하여 처리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광주공장은 캔압착기 및 페트분쇄기 시설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천안공장은 기존 소각 처리한 폐플라스틱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것으로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참고로 의왕공장은 제품 원액만을 제조하여 여주 등의 음료제조 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의왕공장 폐기물발생지수는 18.18로 음료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16.34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

| 폐기물 발생량 | 2012 | | | 총계 |
|---------|-------|-------|-------|--------|
| | 여주 | 양산 | 광주 | |
| 2010 | 6,053 | 3,460 | 2,673 | 12,186 |
| 2011 | 6,198 | 3,735 | 2,484 | 12,417 |
| 2012 | 6,574 | 3,587 | 2,330 | 12,491 |

해태음료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

| 폐기물 발생량 | 2012 | | | 총계 |
|---------|-------|----|----|-------|
| | 천안 | 평창 | 철원 | |
| 2010 | 2,538 | 30 | 72 | 2,640 |
| 2011 | 2,544 | 30 | 47 | 2,622 |
| 2012 | 1,623 | 30 | 76 | 1,730 |

(단위 : %)

| 폐기물 재활용률 | 2012 | | | 총계 |
|----------|------|----|----|----|
| | 여주 | 양산 | 광주 | |
| 2010 | 58 | 88 | 99 | 75 |
| 2011 | 71 | 96 | 98 | 86 |
| 2012 | 63 | 98 | 99 | 80 |

(단위 : %)

| 폐기물 재활용률 | 2012 | | | 총계 |
|----------|------|----|----|----|
| | 천안 | 평창 | 철원 | |
| 2010 | 72 | 0 | 33 | 70 |
| 2011 | 93 | 0 | 35 | 91 |
| 2012 | 90 | 0 | 86 | 88 |

(단위 : 톤)

| 슬러지 발생량 | 2012 | | | 총계 |
|---------|-------|-------|-------|-------|
| | 여주 | 양산 | 광주 | |
| 2010 | 2,966 | 1,161 | 1,057 | 5,184 |
| 2011 | 3,058 | 1,404 | 984 | 5,446 |
| 2012 | 3,236 | 1,161 | 992 | 5,388 |

(단위 : 톤)

| 슬러지 발생량 | 2012 | | | 총계 |
|---------|------|----|----|-----|
| | 천안 | 평창 | 철원 | |
| 2010 | 302 | 0 | 0 | 302 |
| 2011 | 91 | 0 | 0 | 91 |
| 2012 | 126 | 0 | 0 | 126 |

당사는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 이행이라는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용기순환협회에 가입하여 빈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의 회수율 증진 및 제도발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분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금액 |
|------|-------|
| 2010 | 3,925 |
| 2011 | 5,026 |
| 2012 | 4,464 |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 용기회수 실적 (단위 : %)

| 연도 | 용기회수율 |
|------|-------|
| 2010 | 98.8 |
| 2011 | 99.2 |
| 2012 | 98.1 |

〈한국환경공단 김애선 서울지사장 인터뷰〉

녹색경제시대, 기업의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코카-콜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장 김애선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장 정병모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가 시행된 지 10년,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해 일부 제도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를 찾아 21세기 녹색경제시대에 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녹색경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환경과 경제성장의 통합을 나타내는 '녹색경제'라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후변화를 위협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녹색경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녹색경제시대'에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녹색경제시대에는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생존을 위해서 주변 환경이나 사회와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재사용 제품을 만드는 등 친환경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경제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폭넓게 강조된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시행중인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입니다.

EPR 시행 10년,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촉진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간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오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거선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유통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선별장 지원, 공제조합 통합 및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의무생산자인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코카-콜라는 폐기물감량 협약을 맺고 PET병의 재질구조를 개선하고 빈용기 재사용률도 100%에 가깝도록 하는 등 의무생산자로서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녹색경제시대'에는 법과 규제 안에서의 노력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서 '코카-콜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 물 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국내외의 다양한 환경분야에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서비스기관입니다.



하늘 위 세상까지 날아다니는 새들의 자유로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에너지 관리 및 기후 변화 방지 활동

코카-콜라는
2009년 12월 환경부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혁준(제주서초등학교 2학년)

What do you see in the sky?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있어요.
하늘 가까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선글라스가 필요하게 되면 어찌죠?

푸르른 하늘 위를 휘휘 돌면서
땅 위에 작은 벌레까지 찾아내는
새들의 마법 같은 눈,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온실가스 관리체계

코카-콜라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와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 온실가스 감축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할당 받은 후 배출허용 총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초과분 또는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참여주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전체 공장, 정비센터 및 영업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기준배출량(2005~2007년 평균배출량)을 확정하고 각 공장 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배출권 거래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직접, 간접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직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설정,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을 선택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축기간은 2005~2012년까지로 연간 배출량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범위

| 조직경계 | | 기간경계 |
|----------|-----------------------------------------------------------------------------------------------------|------------|
| 공장(3) | 여주, 양산, 광주 | 2005~2012년 |
| 정비센터(1) | 군포 | |
| 영업물류(25) | 안양, 하남, 인천, 일산, 남양주, 춘천, 수원, 강릉, 충주, 사상, 울산, 마산, 진주, 통영,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목포, 순천, 제주, 전북, 대전, 천안, 서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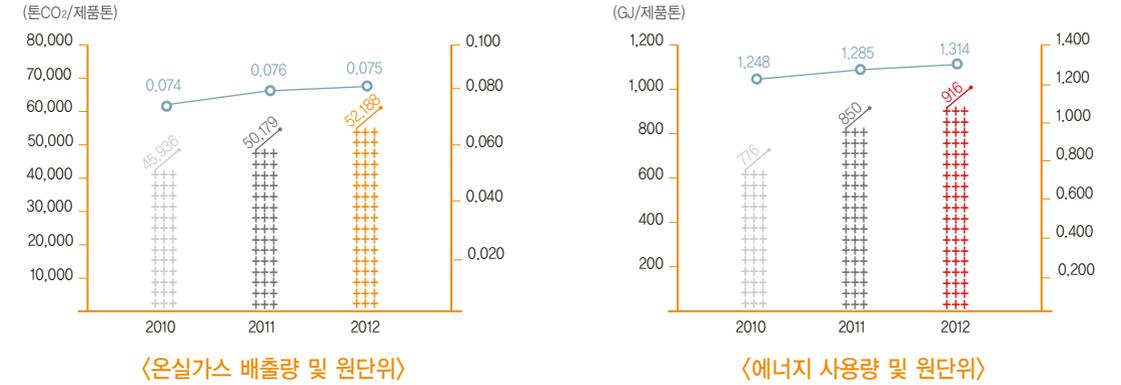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WRI/WBCSD의 GHG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ISO14064-1에 의거하여 구축되었으며, 산정범위는 Scope 1, 2로 구분하여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는 크게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 3)로 구분됩니다. 직접배출은 소유하고 있거나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은 기업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전력이나 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Scope 2와 임직원의 업무출장 또는 통근 등과 같은 기타 모든 간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Scope 3로 구분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Scope)

| 구분 | 내용 | 당사 해당사항 |
|-------|-----------------------------------------------------------------------------------------------------|------------------------|
| 직접 배출 |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
| 간접 배출 | Scope 2 • 기업의 활동결과로 발생하였으나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 기업이 구입하는 전력/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배출 | 전력구매 |
| | Scope 3 기타 모든 간접적인 배출 | 없음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코카-콜라 음료(주)의 2012년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52,188톤으로 생산량 증가 및 제품군의 다양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하여 4% 증가하였으나, 에너지 절감활동 및 지속적인 설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는 1.4% 감소하였습니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 항목 | 2010 | 2011 | 2012 | 평균 배출량 | 비율 | |
|----------------------------|--------|--------|--------|--------|--------|-------|
| 총 배출량 | 45,936 | 50,179 | 52,188 | 49,434 | 100.0% | |
| Scope 1 | 고정연소 | 13,893 | 14,874 | 15,957 | 14,908 | 30.2% |
| | 이동연소 | 10,565 | 12,216 | 11,486 | 11,422 | 23.1% |
| | 공정배출 | 3,083 | 3,157 | 3,358 | 3,199 | 6.5% |
| | 탈루배출 | 259 | 240 | 240 | 246 | 0.5% |
| Scope 2 | 전력구매 | 18,137 | 19,692 | 21,146 | 19,658 | 39.8% |
| 원단위(톤CO ₂ /제품톤) | 0.0739 | 0.0759 | 0.0748 | 0.0749 | | |

2010~2012년까지 코카-콜라 음료(주)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49,434톤으로, 배출원별 배출비중은 직접배출(Scope 1)이 60%, 간접배출(Scope 2)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배출 중에서 고정연소가 30.2%, 이동연소가 23.1%, 공정배출이 6.5%, 탈루배출은 0.5%를 차지했습니다. 당사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배출원 | 주요 배출시설 |
|------|---------------------------------------------------------------------------------------------------------------------|
| 고정연소 | 보일러 및 취사설비(LNG), 난방기(등유) |
| 이동연소 | 차량(휘발유, 경유), 지게차(LPG, 경유), 특수차량(경유) |
| 공정배출 | 탄산음료 탄산주입설비 |
| 탈루배출 | CO ₂ 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소화기 HFCs를 냉매 또는 약제로 사용하는 냉동기, 냉각기, 냉방기 기타 온실가스를 냉매 또는 약제로 사용하는 에어컨, 냉동기, 항온항습기 등 |
| 간접배출 | 전력구매 공장(생산라인, 폐수처리장) & 영업물류 전력구매 |



당사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공장, 영업물류에 대해서는 '삼정KPMG'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국제규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당사의 공장 및 영업물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그리고 간접배출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의 경우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LNG 보일러 및 난방용 등유설비가 주요설비입니다. 공정배출은 탄산음료 원재료로 사용되는 액상 CO₂가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주입되지 못하고 탈루가 되는 CO₂를 대상으로 배출량을 파악했습니다. 간접배출은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전력사용량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IT 시스템

영업물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탈루배출 그리고 간접배출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는 영업소에서 사용한 난방설비가 주요설비이며, 이동연소는 영업용 휘발유, 경유차량 및 LPG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주요 설비입니다. 탈루배출은 CO₂소화기와 HFCs를 냉매제로 사용하는 자판기 등의 설비가 주요설비이며, 간접배출은 '한국전력'에서 구매하는 전력사용량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여주공장

| 구분 | 2010 | 2011 | 2012 | 3개년 평균 배출량 |
|-------|--------|--------|--------|------------|
| 총 배출량 | 18,882 | 19,532 | 20,824 | 19,746 |
| 고정연소 | 7,997 | 8,599 | 9,500 | 8,699 |
| 이동연소 | 859 | - | - | 286 |
| 공정배출 | 1,229 | 1,530 | 1,530 | 1,430 |
| 간접배출 | 8,797 | 9,402 | 9,793 | 9,331 |

양산공장

| 구분 | 2010 | 2011 | 2012 | 3개년 평균 배출량 |
|-------|-------|-------|-------|------------|
| 총 배출량 | 9,832 | 9,303 | 9,829 | 9,654 |
| 고정연소 | 3,298 | 3,773 | 3,618 | 3,563 |
| 이동연소 | 1,132 | - | - | 377 |
| 공정배출 | 1,249 | 943 | 1,267 | 1,153 |
| 간접배출 | 4,153 | 4,586 | 4,944 | 4,561 |

광주공장

| 구분 | 2010 | 2011 | 2012 | 3개년 평균 배출량 |
|-------|-------|-------|-------|------------|
| 총 배출량 | 6,712 | 6,004 | 5,836 | 6,184 |
| 고정연소 | 2,023 | 1,832 | 1,758 | 1,871 |
| 이동연소 | 802 | - | - | 267 |
| 공정배출 | 605 | 683 | 561 | 617 |
| 간접배출 | 3,281 | 3,489 | 3,517 | 3,429 |

영업물류

| 구분 | 2010 | 2011 | 2012 | 3개년 평균 배출량 |
|------|--------|--------|--------|------------|
| 총계 | 10,511 | 15,340 | 15,699 | 13,850 |
| 영업센터 | 2,740 | 3,124 | 4,213 | 3,359 |
| 차량 | 7,771 | 12,216 | 11,486 | 10,491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코카-콜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 온실가스 감축에 발 빠르게 참여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 및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할당 받은 후 배출 허용 총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초과분 또는 감축분을 배출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술 도입, 설비 교체 등을 통한 감축 비용과 배출권을 통한 감축 비용을 비교해 효과적인 감축을 달성할 수 있고, 기업의 감축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유공 환경부장관상 수상모습

더불어 탄소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 경제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공장 혹은 건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 또는 감축분을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 기술 개발을 촉진하게 됩니다.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협약서

환경부장관상

또한 당사는 10년 전부터 CFC 계열의 냉매사용 장비를 오존층 파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HFC 계열 냉매사용 장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약 99.7%의 CFC 냉매장비가 교체되었습니다.

HFC 또한 대표적인 6대 온실가스에 포함되므로, 당사는 글로벌 코카-콜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HFC-free 의 친환경 냉매장비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냉매가스 교체실적

(단위 : %)

| | 2010 | 2011 | 2012 |
|-------|------|------|------|
| CFCs | 5.4 | 3.7 | 0.3 |
| HCFCs | 0 | 0 | 0 |
| HFCs | 94.6 | 96.3 | 99.7 |



탄소성적표지제도

당사는 2008년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음료업체 최초로 음료제품에 대한 탄소성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는 기업이 제품 제조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자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의 코카-콜라(PET 500ml)는 음료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내 생수제품 최초로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2000ml)',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500ml)'까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총 3개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게 되어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생수제품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100ml 당 탄소배출량이 23gCO₂ 이하, 혹은 탄소성적표지 1단계 인증 시 탄소배출량 대비 4.24% 이상 감축해야 하며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의 탄소성적은 각각 92gCO₂/개(500ml), 281gCO₂/개(2000ml)으로 100ml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8.4gCO₂와 14gCO₂입니다.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는 기존 먹는 샘물 '순수 100' 제품을 국내 최초 13.5g의 페트병(500ml 기준)으로 리뉴얼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22% 감소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벼워진 페트병 덕분에 마신 후 쉽게 구기거나 비울 수 있어,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발전과 소비자 홍보차원에서 음료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코카-콜라 500ml 제품으로 환경부와 카카오톡이 함께하는 EcoStamp 캠페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단위 : gCO₂/개)

| 제품명 | 탄소성적 | 저탄소제품(2단계) 인증취득일 | 탄소배출량(1단계) 인증취득일 |
|--------------------|------|------------------|------------------|
| 코카-콜라 500ml | 225 | 2012. 3. 16 | 2009. 3. 17 |
|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2000ml | 281 | 2012. 8. 29 | 2010. 11. 24 |
|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500ml | 92 | 2012. 8. 29 | 2010. 11. 24 |
| 코카-콜라 제로 250ml | 67 | - | 2010. 4. 27 |



카카오톡 EcoStamp



인증제품 홍보 기사



코카-콜라 500ml 코크제로 250ml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500ml & 2000ml

녹색구매

당사는 2010년 6월에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를 통하여 녹색생산과 소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아가는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한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녹색구매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구매 실적 파악 및 소비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체 구매실적 중에서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리필제품", "재생제품",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을 녹색구매 활동으로 구분하여 당사 녹색구매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MRO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구매된 항목 중에서 '12년 약 7.2%가 친환경 제품 구매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서

2012년 녹색구매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총 구매액 | 친환경상품 | | | 녹색구매율 |
|------|-----------|--------|----------|--------|-------|
| | | 환경마크 | 리필/고효율제품 | 소계 | |
| 여주공장 | 688,382 | 74,278 | 1,382 | 75,659 | 11.0% |
| 양산공장 | 223,455 | 1,421 | 718 | 2,139 | 1.0% |
| 광주공장 | 240,810 | 4,470 | 146 | 4,616 | 1.9% |
| 전체 | 1,152,647 | 80,169 | 2,246 | 82,415 | 7.2% |

2011년 녹색구매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총 구매액 | 친환경상품 | | | 녹색구매율 |
|------|-----------|--------|----------|--------|-------|
| | | 환경마크 | 리필/고효율제품 | 소계 | |
| 여주공장 | 570,899 | 65,994 | 2,016 | 68,011 | 11.9% |
| 양산공장 | 210,294 | 1,988 | 930 | 2,918 | 1.4% |
| 광주공장 | 221,994 | 4,570 | 0 | 4,662 | 2.1% |
| 전체 | 1,003,187 | 72,552 | 2,947 | 75,591 | 7.5% |

2010년 녹색구매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총 구매액 | 친환경상품 | | | 녹색구매율 |
|------|---------|--------|----------|--------|-------|
| | | 환경마크 | 리필/고효율제품 | 소계 | |
| 여주공장 | 425,038 | 13,222 | 2,093 | 15,316 | 3.6% |
| 양산공장 | 198,485 | 2,163 | 894 | 3,057 | 1.5% |
| 광주공장 | 164,813 | 4,661 | 232 | 4,893 | 3.0% |
| 전체 | 623,523 | 15,386 | 2,987 | 18,972 | 2.9% |

※ MRO 전체 구매실적에서 녹색구매 대상품목으로 볼 수 없는 구매품목은 제외함

- ① 저장품 : 정수카트리지를, 자판기용 데칼 / 사인보드 / 백판넬 등
- ② 수선유지보수품목 : 펌프류, 철강재 등
- ③ 간접재료비 : 스트레치필름, 희석제, 청관제 등



사막의 뜨거움도 이겨내는 낙타친구들의 생명력,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Does it snow in a desert?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요.

뜨거운 열대 사막에서 누구보다 강한
낙타 친구들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면 어찌죠?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환경 보전 및 지역 사회 환경 개선

코카-콜라는
2007년부터 '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작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수원(신제주초등학교 3학년)



Earth Hour(지구촌 전등끄기)

코카-콜라는 3월 23일 WWF(세계자연보호기금) Earth Hour 한국사무소 주최로 진행되는 'Earth Hour(지구촌 전등끄기)'를 널리 알리고, 행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코카-콜라는 2007년 1회부터 'Earth Hour' 프로그램의 글로벌 후원사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요 코카-콜라 공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1시간동안 전등을 끄며, 기후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에 동참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코카-콜라 기업트위터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환경주제에 대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23일,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코-크빌딩 전등끄기]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별도 제작된 코-크빌딩을 공개하고 팔로워들의 지구촌 전등끄기 인증 참여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코-크빌딩 전등이 꺼져가는 모습을 공유하여 참여의 재미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일대에서 Earth Hour 한국사무소가 주최하는 지구촌 전등끄기 공식 기념행사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오후 2시~4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코카-콜라의 마스코트인 플라베어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 친환경생물 '휘오순수 다이아몬드'를 소비자들에게 나눠주고 포토타임을 갖는 등 지구를 생각하는 '지구촌 전등끄기' 참여 독려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없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도 없다"는 경영이념 아래,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올해로 5년째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저탄소의 미래와 함께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arth Hour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이외에도 당사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료 생산에서부터, 배송, 매장 내 쿨링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및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 프로그램의 동반자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지구촌 전등끄기 소비자 이벤트



코카-콜라 기업트위터 지구촌 전등끄기 이벤트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코카-콜라는 환경재단과 함께 습지 특별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태에 대해 배우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연중 총 4회 운영되는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습지 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생태계의 공생관계와 습지의 자연정화 능력을 배우고 생명 존중과 자연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여 미래의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습지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강화 매화마을 군락지,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전남 순천만 등 국내 주요 습지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각 회차별로 4명의 우수리더를 선발해 시상하였으며, 최우수 그린리더로 선정된 5명에게는 홍콩 마이포습지 방문 등 해외 환경 연구 특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 모든 학생에게는 교육 자료집, 기념티셔츠 등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2013년에도 연중 4회의 교육이 진행되며, 학생들이 제출한 환경보호에 관한 에세이 및 현장 참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명의 최우수 그린리더를 선발해 국외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를 직접 탐사해보는 환경 연구 특전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ICC캠페인 & 농업용수 제공

코카-콜라는 환경보전을 위해 전 세계 코카-콜라와 함께 매년 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CC란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전 세계 연안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환경보전 실천행사입니다. 코카-콜라는 이러한 전 세계적 환경보전활동을 후원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공장 인근의 하천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본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주공장은 모내기철 및 갈수기 등의 주민 요청이 있을 때마다 폐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69,653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주공장(점봉천)



양산공장(양산천)



광주공장(용산천)



남원공장(읍천천)

지역환경 개선활동

하천 환경 정화활동

여주공장은 공장주변 점봉천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점봉천 정화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은 점봉천 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담배꽂초, 페스티로폼, 휴지 등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신록사 주변, 황학산 등산로 주변 일대에서 정화작업 및 환경보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자연의 쉼터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공장밀집지역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투기된 각종 폐기물들로 오염되어 있는 공업지구를 기업체 종사자가 직접 정화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NGO와 지속적인 환경 파트너십을 맺어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은 광주 시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용산천 정화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해태음료 천안공장은 공장인근의 천안천에서 환경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생산하는 평창공장도 철원공장도 공장 인근의 평창 직동천과 철원 남대천에서 환경정화를 위한 하천 보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환경정화 활동 참여 현황

| 구분 | 여주 | | | | 양산 | | | | 광주 | | | |
|------|------|------|------|-----|-----------|-----------|-----------|-----|------|------|------|-----|
| | 2010 | 2011 | 2012 | 계 | 2010 | 2011 | 2012 | 계 | 2010 | 2011 | 2012 | 계 |
| 참석횟수 | 3 | 2 | 3 | 8 | 7 | 9 | 12 | 28 | 3 | 2 | 2 | 7 |
| 참석인원 | 149 | 57 | 43 | 249 | 57 | 67 | 75 | 199 | 89 | 75 | 61 | 225 |
| 장소 | 점봉천 | 점봉천 | 점봉천 | | 양산천 & 내원사 | 양산천 & 내원사 | 양산천 & 내원사 | | 용산천 | 용산천 | 용산천 | |

| 구분 | 천안 | | | | 평창 | | | | 철원 | | | |
|------|------|------|------|----|------|------|------|----|------|------|------|---|
| | 2010 | 2011 | 2012 | 계 | 2010 | 2011 | 2012 | 계 | 2010 | 2011 | 2012 | 계 |
| 참석횟수 | - | 2 | 4 | 6 | 1 | 1 | 1 | 3 | - | - | 1 | 1 |
| 참석인원 | - | 19 | 35 | 54 | 14 | 15 | 9 | 38 | - | - | 8 | 8 |
| 장소 | - | 천안천 | 천안천 | | 직동천 | 직동천 | 직동천 | | - | - | 남대천 | |



천안공장(천안천)



철원공장(남대천)



평창공장(직동천)



코카-콜라와 여주의제 21의 만남, 단단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5월 16일 여주의제 21 사무국에서 코카-콜라와 여주의제 21 주요인사가 함께 하는 간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다시 만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주의 맑은 물을 기반으로 삼는 코카-콜라와 여주의 맑은 물을 지켜나가려는 여주의제 21이 모여 지역사회 환경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길을 찾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주의제 21 상임회장 백규현

지난 2006년 12월에 코카-콜라와 여주의제 21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여주지역의 환경과 경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물이 중요한 자원인 여주에서 코카-콜라는 물을 주요 생산기반으로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코카-콜라와 여주의제 21의 가치가 만나서 여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가는 시너지를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여주의제 21 사무국장 안동희

여주의제 21에서는 기후변화와 물 관련 교육, 자원의 선순환 교육 등 교육사업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 지역정신을 되살리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고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지역기반 기업들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해 간다면 이러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폭넓게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의제 21 운영위원장 조성문

여주문화원에서는 세종의 리더십을 배우는 '집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잇고 당시의 다양한 정책과 일화를 통해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교육입니다. 세종대왕릉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지역명이 '여주'로 바뀐 만큼 지역정신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의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여주의 정신'을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여주환경안전관리파트장 김태훈

그동안 코카-콜라에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환경캠페인이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자체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더욱 폭넓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노력해 오신 여주의제 21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채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의제 21

1992년 유엔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우선언이 발표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으로 의제 21(Agenda 21)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주의제 21은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협정인 지방의제 21의 하나로서 여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공동체를 결집하고 환경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어정의

고정배출원

보일러, 로,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Flare 등과 같은 고정 장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열, 증기, 전력 등 생산에 의해 발생하는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공정배출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 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의미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Beverage Container Deposit System)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빈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동배출

공장 내에서의 이동 및 상품, 원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 비행기, 보트, 선박, 바지선, 항공기 등과 같은 수송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생산품의 출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저탄소제품인증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이 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지침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인증 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한국 코카-콜라(유)와 코카-콜라 음료(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CCB(Coca-Cola Beverage Company)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의 약자입니다.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담당합니다.

CCKC(Coca-Cola Korea Company)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의 약자입니다.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합니다.

FBL(Finally filled Beverage Liter)

최종 생산된 음료제품을 부피 (리터)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Utility(물, 전기, 연료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원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용수사용량(ℓ / FBL)은 총 생산된 음료제품 1리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하며 전력사용량 (kWh/FBL)은 제품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몇 kWh를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

코카-콜라 고유의 품질 시스템. 환경, 제품의 품질, 안전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 기준을 가지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는 국제 규격인 ISO9001, ISO14001, OHSAS18001 등의 국제 기준의 요구 사항에도 부합됩니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기업에서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말합니다. 기업 소모성자재 또는 기업 운용자재라고도 합니다. 필기구부터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며,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 데에 사용하는 공구·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RGB(Returnable Glass Bottle)

1회용 유리병이 아닌 회수하여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리병을 말합니다.

TCCC(The Coca-Cola Company)

원액과 시럽을 생산, 판매하는 코카-콜라사의 약자입니다. 생산된 원액과 시럽은 코카-콜라사의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전 세계의 보틀러에게 공급합니다.

